

남원시 '모빌리티 선도도시' 시동

'드론·항공 산업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조례 제정 도입 관련 산업 연구·교육기관 유치·예산 편성 등 구체적 지원방안 논의

남원시가 '드론 UAM(도심항공교통) 모빌리티 선도 도시' 도약을 위해 드론·항공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남원시는 최근 최경식 시장 주재로 드론·항공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갖고 조례 제정과 내년도 예산 편성 등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LX드론활용센터 구축을 기반으로 드론·항공 산업 관련 공공·연구·교육기관을 유치하고 UAM 모빌리티 구현과 항공레저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토부, 전북도, 정치권 등 관계기관 협의와 조례 제정 및 내년도 예산 편성을 준비 중이다.

이 사업은 국정 과제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과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과 연계해 추진된다. 남원시의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과 관련 민선8기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남원시는 현재 항공산업 클러스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중이다.

세부 추진 사업은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360억원 규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사업 ▲2023 월드 드론 레이스 챔피언십 국제대회 유치 ▲항공안전기술원 분원 유치 등 관련 산업 공공·교육기관 유치 ▲드론 라이트쇼, 드론국제박람회·체험장 운영, 경비행장 관광상품 홍보사업 ▲UAM 저밀도 관광 홍보관·관제센터 조성사업(400억원 규모) 등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비행 위해 요소가 없는 남원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 드론·항공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드론·UAM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새로 개보수한 고창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직원들이 배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고창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재가동

고창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농산물 선별작업을 위한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주)고창항도배기유통에서 운영하는 고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3만7493㎡의 부지에 건축면적 1만3032㎡로 지난 2006년에 건립됐다. 저온저장

장시설,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등의 유통시설장비를 갖추고 있다.

고창군은 노후된 유통센터 개보수를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총 4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특히 배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신규 설치한 선별기를 본격

격 가동 중이며, 12월 초까지 가동해 총 600t에 이르는 물량을 선별 출하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건축 및 저온저장고 개보수 사업, 농산물 선별기 라인 신규 제작 및 설치, 유통시설 장비를 들여오면서 지역 농산물 유통물류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창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위해 선별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주민과 소통 강화...정읍 보건사업 신속 전달"

손경희 보건소장 언론 브리핑

정읍시보건소가 올해 추진 중인 보건소 주요사업 설명하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정읍시는 최근 신입 손경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내 3과 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언론인 정례브리핑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의 주요 사업과 현안을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손경희 보건소장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읍의 발전을 위해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주요 업무와 이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의 단열 제

하와 결로, 곰팡이 발생 등 열악한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알렸다.

13억4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정읍시립요양병원과 응동보건지소, 태인보건지소 등 3개소를 대상으로 공공건축물 내·외벽 단열과 창호공사,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고창군 '그린시티' 선정 '환경부 장관상'

고창군이 환경부의 '그린시티'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았다.

고창군은 환경부 주관 '제10회 그린시티 시상식'에서 환경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는 '그린시티'는 환경부가 환경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환경 진화 지방행정을 확산시키고자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서면평가를 통해 12곳의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환경부장관상은 전북 고창군 등 4곳이 수상했다.

도시환경, 자연환경,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주민참여 등 평가 항목에 대한 전문가의 종합평가를 거쳐 전국의 우수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군부에서는 고창군이 유일하다.

군은 '생태 일변지 고창'이라는 타이틀로 전 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점과 이를 통해 추진 중인 생태관광도시 조성이 높게 평가됐다.



환경부 주관 '그린시티'에 선정된 고창군의 노형수(왼쪽) 부군수가 한화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장관상을 받은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그린시티'로 선정된 고창군은 현판과 상패를 받고 향후 환경부의 환경 관련 평가사업에서 '우선 고려대상'으로 분류되는 특권을 갖게 됐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KBS 남원방송국 '아트센터' 변신

남원아트센터 오늘 개관...미디어아트·도예작품기획전

남원의 옛 KBS남원방송국이 시민 문화공간인 '남원아트센터'로 탈바꿈했다.

남원시는 기존 KBS남원방송국 유휴부지가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대상에 선정되면서 남원아트센터가 조성됐으며 31일 오후 6시30분 개관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아트센터는 시민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최근 시설물 내·외부 정비와 운영 준비과정을 거치는 등 문화예술거점 활성화를 위한 새단장을 마친 후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개관을 기념한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됐다.

국내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새로운 생태를 만들어가는 미디어아트 작품 전시 '빛의 조각 NAC'가 펼쳐진다.

남원에서 오프라인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을 꾸

며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면적 디지털 아트를 뛰어넘어 상호작용하는 인터랙티브 확장현실(XR)을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작가 93명과 해외작가 40명 등 18개국 133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도예작가 기획전 '오늘이 오늘이소서'의 화려한 막이 오른다.

전국적으로도 보기드문 대규모 전시로 세계 도자기의 수준 높은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대규모 전시로 전세계 도자기의 수준 높은 도예 문화를 만날 수 있다.

여기에 개관식 당일엔 만추의 '고요한 밤'을 아름다운 선율로 채워줄 남원시립어린이합창단의 공연과 클래식 콘서트도 함께 열려 남원아트센터의 개관을 축하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가을밤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2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으로 2회 연속 재인증 받았다.

정읍시는 지난 2019년 규제혁신 우수기관(2019-2021년)으로 신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재인증에 성공하며 2023-2025년까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속하게 됐다.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인증서를 받고 재정인센티브로 3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14개의 진단 항목에 대한 실적 검증을 통해 규제혁신 역량 수준을 심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그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으

로 기업체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개선에 노력했으며, 민간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 사항을 청취 후 중소기업 읍부즈만에 건의했다. 또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통해 자치법규 24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희수 정읍시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